성 당 소 식

✷ **미사지향 (연미사)**

- 김명자(헬레나) - 가족
- 김원준 - 가족
- 이종선(헤레나) - 최세레나&최미카엘
- 성경숙(아가다) - 성안드레아
- 최강섭(요한) - 가족
- 이은례(데레사) - 박두선(요셉)
- 김삼식(베드로)의 영혼을 위하여 - 가족
- 조명훈(요셉)의 영원한 안식 배수정(로사) - 최바실라
- 한석희(빈센트) - 가족, 김순옥(율리아)
- Bruce A Goldman - Monica Goldman
- 오화남 정문조(안드레아) - 서현주(데레사)
- 세상을 떠난 레지오 단원들의 영혼 - 일치 의 모후 Pr. 바다의 별 Pr.

✷ **미사지향 (생미사)**

- 오요한 부제님 - 이용뮨(안드레아)
- 김영필(안토니오) - 가족
- 염은미(글라라) - 가족
- 염기선(베드로) 건강 회복 육순재(프란치스코) - 연령회
- 이예원(테오도라) - 가족
- 임영자(안나) 이희숙(데레사) - 변인순(엘리사벳)
- 성가대 모든분들의 건강 - 안현정(소화데레사)
- 곽신규(루시아) - 변모공동체

✷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 주일헌금.....$1,297(114명)
- 교무금.....$1,815

이막동(9~12) 오요한(11~12) 곽신규(11~12) 서영원(11~12)
박병태(10) 유용희(11~12) 전옥주(11~12) 김영필(11~12)

- 감사금.....$100(오경숙), $50(이흥례)

✷ **모든 친교 후 청소 철저**

1. 모든 쓰레기통은 비우고 새 비닐백으로 씌워주세요.
2. 재활용통에 쓰레기를 버리지 마시고, 병, 캔, 깨끗한 종이 만 넣어주세요.
3. 바닥 청소
4. 성당안의 가전제품, 큰가구, 규격외의 부피가 큰 쓰레기를 버릴시에는 반드시 사무실과 상의후 절차에 따라 처리해주세요.
5. 성당건물을 사용한 사람은 나올때 반드시 불을 끄고 문을 잠가 주세요.
6. 성당밖에 담배꽁초를 버리지 마세요. (경당 옆 흡연 금지)

✷ **원할한 주보 제작을 위해 미사 지향 신청 및 주보 공지 사항을 매주 수요일로 마감합니다.**

✷ **성당보수기금이 모두 마련될때까지 모든 감사헌금은 성당보수기금으로 들어갑니다. 감사합니다.**

✷ **환우들의 빠른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건철(안토니오) 김영필(안토니오) 염은미(클라라)
곽 율리안나 김정선(스텔라) 이 마이클 정윤석(토마스)

✷ **2차 헌금 (11/15) Works of Mercy Campaign(자비 실천 운동)**

✷ **빵과 포도주 봉**

11/15 윤준희 구윤미 11/22 최창하 박유빈 11/29 정대호 박혜정

✷ **빵과 포도주 봉헌 및 친교 봉사 구역별 일정**

11/15 럿거스 11/22 노스브런스윅 12/20 먼로 1/17 노스에디슨
2/21 사우스브런스윅 3/21 썸머셋 4/18 에디슨 5/17 올드브릿지
6/20 이스트브런스윅 7/18 피스브릿지 8/15 노스브런스윅

✷ **이번 주일에은 미주가톨릭평화신문 사장이신 김찬미 가비노 신부님께서 저희 성당에 방문하시어 미사 집전해 주실 예정입니다. 신부님의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함께 기도와 은총의 시간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 **〈성모회〉** 테네시 농작물을 주문하신 분들은 미사 전후에 친교실에서 찾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오경숙(세실리아) 자매님께서 지난 11월 7일에 열린 다문화 행사에 $100 도네이션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전례분과 월례회의**

일시/장소: 11월 15일(주일) 미사후 / 친교실 (소회의실)

✷ **올드 브릿지 구역모임**

일시/장소: 11월 15일(주일) 미사후 / 친교실 (대회의실)

✷ **써머셋 구역모임**

일시/장소: 11월 15일(주일) 미사후 / 루이지스 피자

✷ **사우스브런스윅 구역모임**

일시/장소: 11월 15일(주일) 미사후 / 루이지스 피자

✷ **피스브릿지 구역모임**

일시/장소: 11월 15일(주일) 미사후 / 친교실
일시/장소: 11월 22일(주일) 미사후 / 친교실 (소희의실)

✷ **구역장 전체모임**

일시/장소: 11월 22일(주일) 미사후 / 친교실

✷ **레지오 마리애 연차 총 친목회**

일시/장소: 11월 29일(주일) 미사후 / 친교실

✷ **요셉회 모임**

일시/장소: 12월 6일(주일) 미사후 / 친교실

✷ **노스브런스윅 모임**

일시/장소: 12월 6일(주일) 미사후 / 친교실 (대회의실)

✷ **노스에다슨 구역모임**

일시/장소: 12월 20일(주일) 미사후 / 루이지스 피자

말 씀 의 전 례

✷ **제 1독서** **잠언 31,10-13.19-20.30-31**

훌륭한 아내를 누가 얻으리오? 그 가치는 산호보다 높다. 남편은 그를 마음으로 신뢰하고 소득이 모자라지 않는다. 그 아내는 한평생 남편에게 해 끼치는 일 없이 잘해 준다. 양모와 아마를 구해다가 제 손으로 즐거이 일한다. 한 손으로는 물레질하고 다른 손으로는 실을 잣는다. 가난한 이에게 손을 펼치고 불쌍한 이에게 손을 내밀어 도와준다. 우아함은 거짓이고 아름다움은 헛것이지만 주님을 경외하는 여인은 칭송을 받는다. 그 손이 거둔 결실을 그에게 돌리고 그가 한 일을 성문에서 칭송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 **제 2독서** **테살로니카5,1-6**

형제 여러분, 그 시간과 그 때에 관해서는 여러분에게 더 쓸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의 날이 마치 밤도둑처럼 온다는 것을 여러분 자신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평화롭다, 안전하다." 할 때, 아기를 밴 여자에게 진통이 오는 것처럼 갑자기 그들에게 파멸이 닥치는데, 아무도 그것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어둠 속에 있지 않으므로, 그날이 여러분을 도둑처럼 덮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빛의 자녀이며 낮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들지 말고, 맑은 정신으로 깨어 있도록 합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 **복음** **마태오 25,14-30**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나면서 종들을 불러 재산을 맡기는 것과 같다. 그는 각자의 능력에 따라 한 사람에게는 다섯 탈렌트, 다른 사람에게는 두 탈렌트, 또 다른 사람에게는 한 탈렌트를 주고 여행을 떠났다. 다섯 탈렌트를 받은 이는 곧 가서 그 돈을 활용하여 다섯 탈렌트를 더 벌었다. 두 탈렌트를 받은 이도 그렇게 하여 두 탈렌트를 더 벌었다. 그러나 한 탈렌트를 받은 이는 물러가서 땅을 파고 주인의 그 돈을 숨겼다. 오랜 뒤에 종들의 주인이 와서 그들과 셈을 하게 되었다. 다섯 탈렌트를 받은 이가 나아가서 다섯 탈렌트를 더 바치며, '주인님, 저에게 다섯 탈렌트를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다섯 탈렌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주인이 그에게 일렀다. '잘하였다, 착하고 성실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성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너에게 많은 일을 맡기겠다. 와서 네 주인과 함께 기쁨을 나누어라.' 두 탈렌트를 받은 이도 나아가서, '주인님, 저에게 두 탈렌트를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두 탈렌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주인이 그에게 일렀다. '잘하였다, 착하고 성실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성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너에게 많은 일을 맡기겠다. 와서 네 주인과 함께 기쁨을 나누어라.' 그런데 한 탈렌트를 받은 이는 나아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주인님, 저는 주인님께서 모진 분이시어서, 심지 않은 데에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에서 모으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나머지 물러가서 주인님의 탈렌트를 땅에 숨겨 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주인님의 것을 도로 받으십시오.' 그러자 주인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심지 않은 데에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에서 모으는 줄로 알고 있었다는 말이냐? 그렇다면 내 돈을 대금업자들에게 맡겼어야지. 그리하였으면 내가 돌아왔을 때에 내 돈에 이자를 붙여 돌려받았을 것이다. 저자에게서 그 한 탈렌트를 빼앗아 열 탈렌트를 가진 이에게 주어라. 누구든지 가진 자는 더 받아 넉넉해지고, 가진 것이 없는 자는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그리고 저 쓸모없는 종은 바깥 어둠 속으로 내던져 버려라. 거기에서 그는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레타천 교구 공지 / 기도문 / 기타

✝ **위령 성월 기도문 (시편 130(129))**

✝

○ 깊은 구렁 속에서
주님, 당신께 부르짖나이다.
● 주님, 제 소리를 들어 주소서.
애원하는 제 소리에 당신 귀를 기울이소서.
○ 주님, 당신이 죄악을 헤아리신다면
주님, 감당할 자 누구이리까?
● 당신은 용서하는 분이시니
사람들이 당신을 경외하리이다.

○ 나 주님께 바라네.
내 영혼이 주님께 바라며
그분 말씀에 희망을 두네.
●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기보다
내 영혼이 주님을 더 기다리네.
○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기보다
이스라엘이 주님을 더 기다리네.
● 주님께는 자애가 있고
풍요로운 구원이 있네.
○ 바로 그분이 이스라엘을
모든 죄악에서 구원하시리라.

┼ 기도합시다.
사람을 창조하시고
믿는 이들을 구원하시는 하느님,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어
주님을 섬기던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이 바라던 영원한 행복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 주님, 그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 영원한 빛을 그들에게 비추소서.

┼ 세상을 떠난 모든 이가
하느님의 자비로 평화의 안식을 얻게 하소서.
◎ 아멘.

✝ **대사를 얻기 위한 기도**

착하시고 어지신 예수님,
굽어보소서.
주님의 어전에 부복하여
열심히 기도하며 간구하오니,
신.망.애 삼덕의 뜨거운 정과,
범한 죄를 뉘우치는 참다운
통회와, 아울러 행실을 고치려는
굳은 뜻을 저희 마음속에
박아 주소서.

착하신 예수님,
일찍이 주님을 대신하여,
"그들이 내 손발에 구멍을 내고
내 뼈를 전부 세어 보았도다" 한
예언자 다윗의 말을 생각하고,
깊은 감동과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다섯 상처를 바라보며
묵상하나이다.

(교황의 의향대로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각 한 번)